

第5次 經濟社会發展 5個年計劃

末年부터 시작되는 제5차 經濟開發 5 個年計劃이 지난 8월21일 확정 발표됐다. 80年代의 經濟社会發展을 이끌어 갈 第5次計劃은 「安定·能率·均衡」을 基調로하고 계획기간 중 年平均성장률 7.6%, 年間 물가상승률 10%수준, 社会開發의 확대로 所得階層間및 地域間 均衡발전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목표연도인 86년에는 輸出 5백30억달러, 輸入 5백55억달러를 달성하고, 持續成長을 뒷받침하기 위한 總投資는 年평균 8.8%씩 늘려 86년의 총투자율을 32.5%로 늘리면서 産業構造를 고도화시켜 86년도의 工業化率을 80年현재 29.4%에서 34%까지 提高시

키기로 했다.

한편 이 5次計劃은 합리적인 에너지 政策의 추진으로 ▲에너지源의 多元化와 효율적 利用 ▲石炭의 생산기반 확충 ▲石油의 안정확보와 消費代替추진 ▲대륙붕開發과 인도네시아油田 공동개발 추진등을 목표하고 있다. 동시에 主要投資事業중에는 ▲81년부터 86년까지 年間 3百萬톤을 도입하는 LNG 受入基地건설에 3千6百20億원, ▲82년까지 百萬톤 수송가능한 LPG受入基地 완공(계획기간중 3百10億원 投資)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은 제5차5개년計劃의 주요 골자이다. <編輯者註>

〈基本目標〉

「安定」「能率」「均衡」의 基調下에

첫째 : 경제안정基盤의 定着(10% 수준의 물가안정) → 國民生活 安定, 競爭力 강화와 國際收支 개선

둘째 : 持續的 성장기반의 공고화 (7~8%의 경제성장) → 雇傭機會의 확대와 소득증대.

셋째 : 所得階層間·地域間 均衡 발전(사회개발의 확대) → 國民福祉의 증진.

〈發展戰略〉

-경제체질 再編의 추진

○물가안정에 政策의 最優先을 두어 경제안정기반의 定着.

○投資效率을 극대화하고 저축을 증대

○시장경제機能을 활성화하여

능률향상

-恒久的 발전기반의 구축

○輸出主導의 지속과 對外開放 政策의 적극화

○국내외시장에서 競爭力 있는 比較우위산업의 육성

○에너지 制約의 극복
-地域間·階層間·部門間의 均

〈經濟成長〉

	單位	3次計劃 ('72~'76)	4次計劃 ('77~'81)	5次計劃 ('82~'86)
人 口 ¹⁾	千 名	35,860	38,723	41,839
(年平均增加率)	%	(1.75)	(1.55)	(1.55)
經濟活動人口 ¹⁾	千 名	13,061	14,744	16,948
(年平均增加數)	"	(504)	(337)	(441)
(年平均增加率)	%	(4.4)	(2.5)	(2.8)
就業人口 ¹⁾	千 名	12,556	14,037	16,268
就業人口增加率	%	4.5	2.3	3.0
失業率 ¹⁾	"	3.9	4.8	4.0
(失業者數) ¹⁾	千 名	(505)	(707)	(680)
生産性增加率	%	5.4	3.2	4~5
經濟成長率	"	10.1	5.5	7~8

1) 期間末年

형발전

- 국토의 균형개발과 쾌적한 환경의 조성
- 基本需要充足과 사회개발의 적극적 추진

國際收支(要約)
(經常, 億弗)

	'80	'81	'82	'86
經常收支	-53	-54	-49	-36
貿易收支	-44	-42	-40	-25
輸出	172	210	253	530
輸入	216	252	293	555
貿易外收支	-14	-17	-14	-16
移轉收支	5	5	5	5
長期資本	19	30	29	30
基礎收支	-35	-24	-20	-6
短期資本	19	8	8	3
綜合收支	-19	-16	-12	-3
外換保有額	66	70	75	110

製造業의 모습

	단 위	'80	'86
工業化率 (製造業附加價值 / GNP)	不變, %	29.4	34.0
重化學工業化率	"	54.5	58.0
就業人口中比重	%	21.7	24.4
固定投資中比重	不變, %	14.7	22.5
工產品輸出比重 (重化學製品比率)	經常, %	90.4	93.8
	"	(42.8)	(54.3)

1) 期間中 平均構成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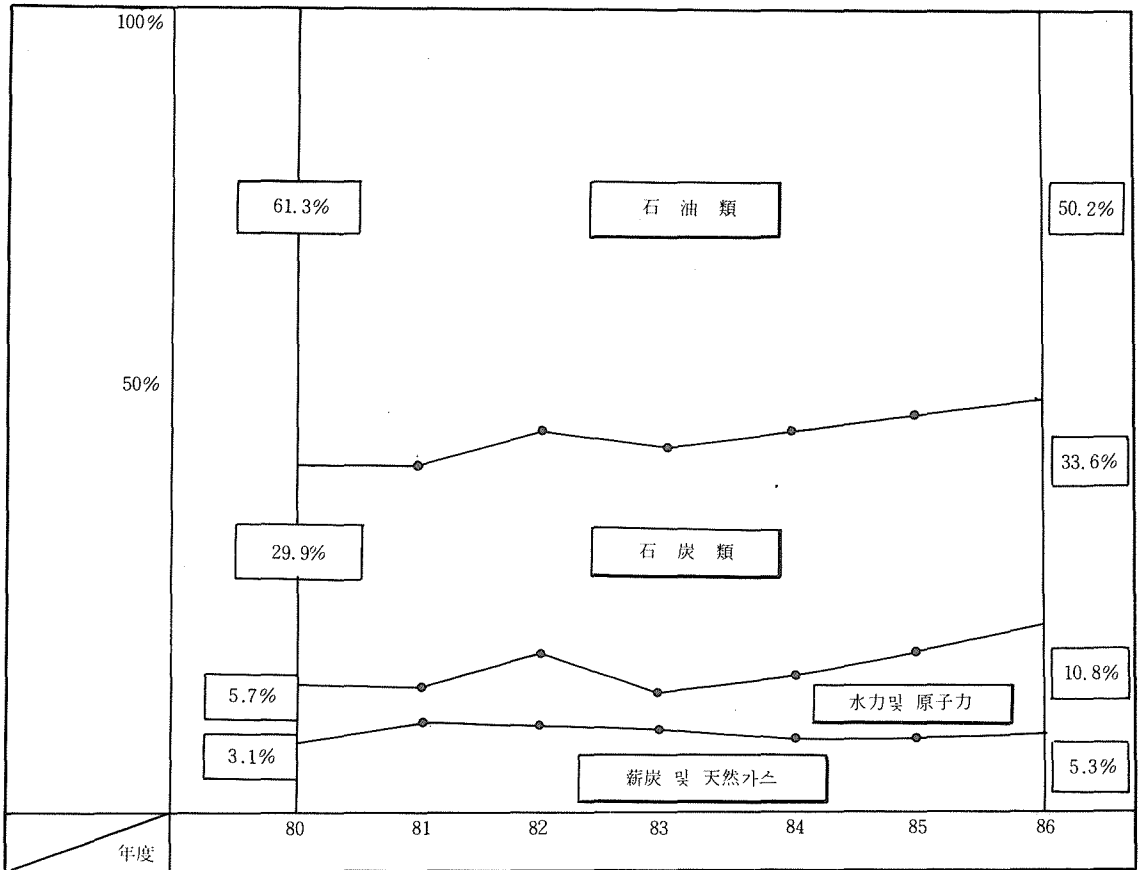
〈에너지政策〉

- 에너지源의 多元化와 效率의 利用
- 石炭의 長期安定生産基盤의 擴充
- 石油의 安定確保와 消費代替推進
- 電源開發計劃의 合理的 推進

에너지源의 多元化와 효율적 이용

- 原子力, 石炭 등 에너지源의 多樣化와 非核能력의 提高로 공급과 價格 불안에 伸縮的인 대응
- 國內賦存資源의 개발과 海外開發 수입확대
- 에너지資源의 소비절약과 효율적 利用
- 에너지 集約的인 산업의 新 增設抑制와 절약형 설비의 개발 보급 등으로 에너지 節約 型 산업구조로의 개선
- 断熱材普及, 시공 관리강화
- 에너지 使用機器의 熱效率提高와 廢資源의 재활용
- 沿岸海運 및 철도확대로 輸送分擔體系의 개선추진
- 종합적인 價格構造 개편을통한 소비절약의 유도

總에너지需要전망



총에너지 수요전망 (石油환산百万톤)

	80	81	83	86	82~86 年平均增加率(%)
총 에너지	44.1	47.8	54.9	66.8	7.0
石油類	27.0	28.8	32.5	33.6	3.1
石炭類	13.2	15.1	18.2	22.5	8.2
水力및原子力	1.4	1.3	2.0	7.3	40.9
天然 가스	-	-	-	1.9	-
薪 炭	2.5	2.5	2.3	1.6	△ 9.0

- 無煙炭 공급한계에 따른 가정용 燃料의 다원화
- 도시연료의 가스화 확대로 공해방지와 便宜性 提高
- 1次로 發電用으로 대량 사용 후 단계적으로 都市가스로 보급확대

	4차계획 ('77~'81)	5차계획 ('82~'86)
에너지탄성치	1.24	0.92
석유소비탄성치	1.35	0.53

石油의 안정 확보와 消費 代替 추진

- 供給先의 다변화와 안정 확보 체제의 확립
- 정부原油備蓄의 단계적 추진
- 대륙붕개발과 印尼油田 공동개발 추진
- 가스의 導入과 보급확대
 - LNG 및 LPG受入基地 건설

電源開發計劃의 합리적 추진

- 原子力, 石炭 등 발전소건설로 發電源의 다원화
- 電力需要에 부응한 발전소 건설
- 發電과 送配電시설의 균형유지
- 發電效率향상과 送配電損失의 감소
- 원자력발전관계技術人力의 개발

석탄의 生産基盤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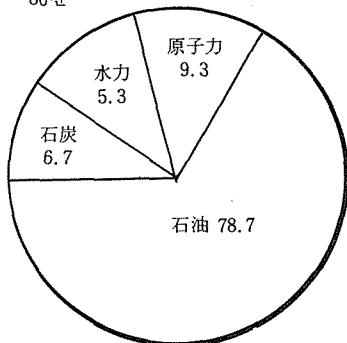
- 國內炭 증산기반構築
 - 探査試錐활동의 적극지원
 - 採炭기계화의 촉진
 - 鑛山村생활환경 및 鑛夫의 후생복지개선
- 經常財政補助의 축소와 基金化 유도
- 非需期 貯炭擴大와 수송 효율의 提高로 수급안정
- 가정연료를 無煙炭 중심에서 漸次 가스 등 다원화 추진

	單位	'80	'86
石油依存度	%	61.3	50.2
原油導入量	百萬Bbl(ℓ)	183	261
原油精製能力	千 B/D	790	1,000
原油備蓄(政府)	百萬Bbl(ℓ)	0(-)	50(60日分)
(原油在庫)		(30)	(90日分)
LNG導入量	千噸/年	-	1,500
LPG導入量	"	-	1,000

	단 위	'80	'86
석탄생산량	百万톤	18.5	21.5
貯炭量	"	4.6	5.6
採炭기계화율	%	8	35
鑛夫주택보급율	%	84.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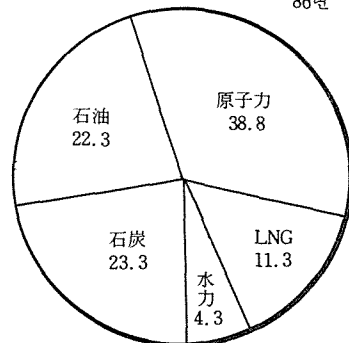
	單位	80	86
○ 총 시설 용량	千kw	9,390	17,570
○ 原子力시설용량	"	587(1基)	4,766(6基)
○ 發電效率	%	35	38
○ 1人當電力소비량	kwh	857	1,413

80년



發電量 構成(%)

86년



年度別 發電所 建設計劃 (完工)

(單位：千kw)

年度	發電所名	容量	施設容量	可能出力	最大需要	豫備率 (%)
'81	既存設備		9,836	7,717	6,436	19.9
'82	北濟州火力	10				
	西海火力#1	200				
	休廢止	△ 364	9,682	8,521	6,961	22.4
'83	月城原子力	679				
	西海火力#2	200				
	三千浦火力#1	560				
	高亭火力#1	500				
	古里原子力#2	650				
	休廢止	△ 10	12,261	9,633	7,795	23.6
'84	三千浦火力#2	560				
	原子力#5	950				
	高亭火力#2	500				
	平澤火力#3	350				
	休廢止	△ 380	14,241	10,952	8,795	24.5
'85	平澤火力#4	350				
	忠州水力	400				
	原子力#6	950				
	三浪津揚水	600	16,541	13,718	9,916	38.2
'86	原子力#7	950				
	陝川水力	80	17,571	15,164	11,190	35.5

發電所建設計劃 (繼續 및 着工)

(單位：10億원)

發電所名	工 期	施設容量 (千kw)	投 資 費	
			總事業費	'82~'86
〈繼續事業〉				
原子力#7,8	79.3~87.3	950×2	1,222	1,007
原子力#9,10	80.4~89.3	950×2	1,287	1,129
原子力#11,12	81.1~90.12	900×2	2,144	1,292
〈着工事業〉				
茂朱揚水	84.7~89.12	600	145	38
石炭火力#5,6	85.6~89.12	500×2	444	43
石炭火力#7,8	86.1~91.3	500×2	444	3
原子力#13,14	85.1~91.12	900×2	1,275	50
原子力#15	86.1~92.12	950	713	5

— 海外短信 —

이라크原子炉 再建에 佛·이라크 原則 合意

프랑스와 이라크 兩國은 지난번 이스라엘 空軍에 의해 爆擊된 바그다드 郊外 타므즈의 原子炉를 再建할 것에 原則的으로 合意했다.

兩國은 同原子炉의 軍用轉換을 抑制하는 監視強化措置의 細目이 確定되는대로 近間 合意할 展望이다.

다만 同原子炉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核武器開發을 위한 것이라고 断定하여 神經을 곤두세우고 있는 때인만큼, 同原子炉 再建의 合意는 中東情勢와 프랑스의 中東에서의 立場에 複雜한 影響을 끼칠 것으로 보여진다.

미테랑 佛大統領, 타리크·아지즈 이라크副首相에 의한 會談은 미테랑 佛社會黨 政權 發足後 처음 있는 頂上級 會談 인만큼 注目を 끌었는데, 中心 議題는 原子炉再建問題였다고 한다.

會談後 엘리제宮報道官은 ① 프랑스는 이라크의 技術·에너지 開發에 寄与할 意向이다. ② 이것이 核武器擴散으로 連繫되지 않을 것이 緊要하다. ③ 原子炉의 軍事轉用 沮止를 위한 保證措置를 近間 兩國에서 協議한다고 言明, 프랑스가 軍事轉用 沮止의 監視措置強化를 條件으로 原子炉 再建에 原則的으로 合意했음을 示唆했다.

또 미테랑大統領이 「다른 나라에 供給되고 있는 物資, 技術을 이라크에 대하여 拒否할 理由는 전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도 明白해졌다.